

머 리 말

흔히 어른들은 지난 날 자신들의 청소년기로 미루어 지금의 청소년을 보는 버릇이 있다. 지내 보았으니 자기들이 청소년기를 더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그때의 자기의 문제, 사고, 이상, 규범 등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보고 청소년 문제를 해석·판단·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한걸음 물러서 생각해 보면, 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이 되고 그때의 어른들이 청소년을 문제삼아 우려하던 말들을 이제는 자신들이 “요새 젊은 놈들은……”라는 접두사로서 발언을 시작하는 한 정형화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형화된 인식이란 한 마디로 청소년들을 어른의 안경, 좀 더 과장되게 말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어른들의 안경이 정말로 청소년들을 보는 데 적합하고 타당한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개발되었다. 지금껏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원인-결과’의 좁은 틀로서 보아 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청소년 문제에는 이러한 접근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이나 사실보다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보다 강조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제를 역동적이고 발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청소년들의 경험된 딜레마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른들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이 쓰는 안경의 적절성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공통의 관심사의 주변에서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시리즈)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관계, 청소년과 학습·진로문제, 청소년과 이성문제, 청소년과 비행, 그리고 청소년과 정신건강 등의 5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어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10개의 주제들은,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관해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전제들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반성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이 자료집을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체육청소년부와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진들의 창의와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1990. 12

한국청소년연구원

원장 이 윤 구

차 례

공부만이 제일인가요

실력이 모자라요

우리는 공부만 하는 로봇인가

교육도 백화점 식인가

체벌은 사랑의 매인가 폭력인가

잔소리가 아닌 대화가 그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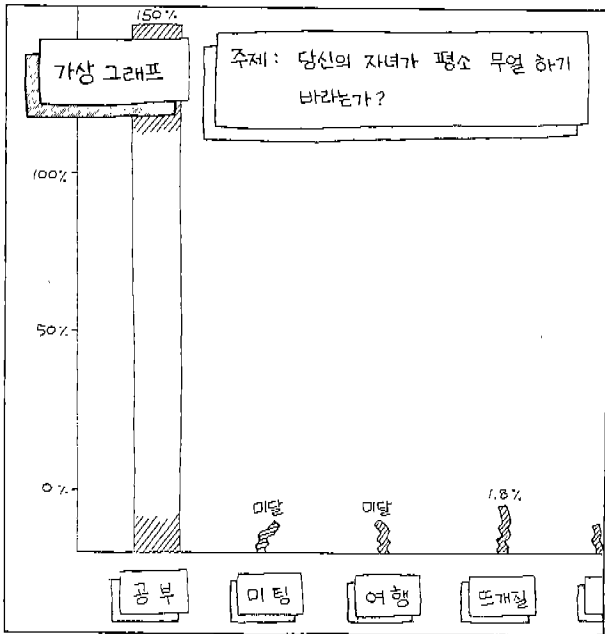
진학인가 취업인가

대학은 출세의 고속도로인가

재수생은 죄수생인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공부만이 제일인가요



“뭐니 뭐니 해도 공부 잘 해야 한다.”

“공부 잘 해야 앞길이 확 트여.”

“공부 못하면 출세할 수 없어.”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매일같이 강조하는 말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와 성적에 대하여 자나깨나 관심이 대단하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며,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 자녀를 기르는 보람을 느낀다. 자녀가 공부에 열중하지 않거나 성적이 많이 떨어졌을 때 부모는 낙심하게 되고 자녀에게 제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고, 잘해야만 한다고 강요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공부만 잘하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만큼 교육을 시키겠다는 각오로 자녀 교육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좋은 것이면 물불을 안가릴 정도로 극성을 피우는 부모들도 많이 있다. 자녀가 부모의 생각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는 부모가 이루어 놓은 정도만큼 자녀도 성취해야 된다고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교육열이 높은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500년간의 조선왕조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선비였었는데, 선비는 학문과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다. 조선 시대에서는 선비가 높은 신분을 누렸고, 군인이나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천시 당하였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우리는 은연 중에 글을 숭상하는 숭문주의 또는 인문주의 사상에 젖어 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높여주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낮게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민의 계급이 뚜렷했었지만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계급적인 신분은 깨어져 내렸다. 이제는 누구든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금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양반이나 상민이나를 따지지 않는다. 개인의 신분을 따질 때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다 기준을 둔다.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신분도 상승되고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남에게 존경 받으며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회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사회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를 많이 차별하고 있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사람을 능력이나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학력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이다. 1986년 노동부의 임금실태 조사서를 보면 대졸 임금은 고졸 임금의 2.2배이고, 초급 대졸 임금의 1.7배에 달한다. 이런 식의 임금격차는 앞으로 많이 해소 될 것이다. 이미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인간대우가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학력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지위의 확보가 정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학력을 선호하고, 부모는 자녀의 공부에 모든 관심을 모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만은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더 좋은 학교에 진학 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 제도는 원하는 학생들을 모두 받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실시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주고 있어서 대다수가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으로의 진학은 마치 병목처럼 갑자기 좁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고등

학교를 졸업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자에 대학입학 경쟁률은 매우 높다. 대학의 문이 너무 좁아서 전체 대학입학 수험자의 약 30%만이 대학생이 될 수 있고, 70%는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청소년들은 인간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점수와 등수에 쫓기면서 견디어 내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1990년 2월에 실시한 한 조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62.5%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88년 한 해에 자살한 중·고생 수가 126명에 달한다. 물론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자살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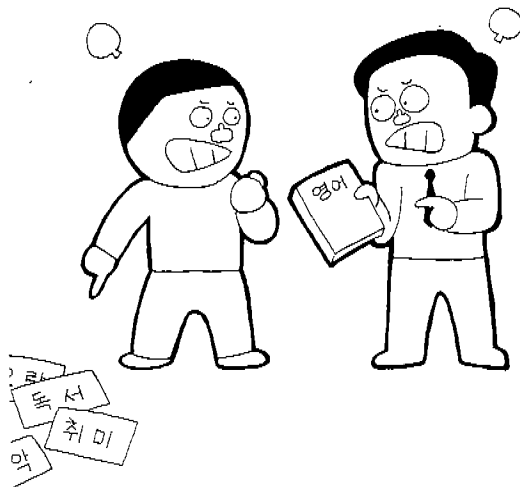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공부만이 제일이라고 강요해야 할까? 앞으로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설계해 가도록 합리적인 교육적 배려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을 지나치게 불안에 빠뜨리거나 청소년 스스로를 자포자기해 버리도록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소수이고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수인 교육여건 아래서 학생들은 가출이나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우정을 나누고 협동정신을 배우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학교는 너무나 점수

따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무시하는 획일적이고 주입식 일변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인 인간을 기르는 일이 학교에서 많이 외면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금 그토록 매달리는 공부가 사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인 공부이지만 긴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대부분 크게 소용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전체 지원자의 70% 정도가 대학을 갈 수 없는 현실에서 대학입학을 위해서만 필요한 공부에 전심전력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무리가 되는 일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2000년대의 주역이다. 우리는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21세기는 과거나 지금처럼 학력위주의 신분사회는



더 더욱 아날 것이다. 설령 대학 졸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전문가 자격증을 의미하는 시대는 아날 것이다. 21세기는 보다 더 능력위주로 평가되는 사회일 것이며 사람을 학벌위주로 평가하는 사회는 아날 것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일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식을 달달 외워서 좋은 점수를 올리는 능력 보다는 기발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창의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미래의 사회이다.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찍어내는 정답형 인간 보다는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인간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에 적절한 사람일 것이다.

아직까지 부모들이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믿고 있지만, 행복은 성적순일 수 없는 사회가 벌써 오고 있다. 시험점수로만 개인의 능력과 인격전체를 평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의 교육제도와 사회분위기에다 그 탓을 돌리고 있지만, 사실 교육제도의 개선과 사회분위기 쇄신은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사회를 예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 “대학 못가더라도 네 적성을 살려서 소신껏 미래를 가꾸어 가거라” “대학가는 것이 너의 행복의 조건은 아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과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너무 공부에만 매어 달리지 말고 좋은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자녀에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네가 보람있

게 해낼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자녀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21세기는 “공부해라”라는 말만 들으며 성장한 사람보다는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소신껏 살아가라”라는 말을 들으며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자란 사람에게 유리한 사회일 것이다. 이제 자녀를 향하여 공부, 공부, 경쟁, 경쟁, 대학, 대학 하지 말아야 하겠다. 자녀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생활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인간성이 풍부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교육이 성적과 학벌에 따라 우월감과 열등감을 분배하지 않는 교육이면서도 자녀의 다양한 능력과 소망을 영글게 하는 교육이 되도록 학부모가 힘써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형성이다. 자녀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성숙의 과제를 충실히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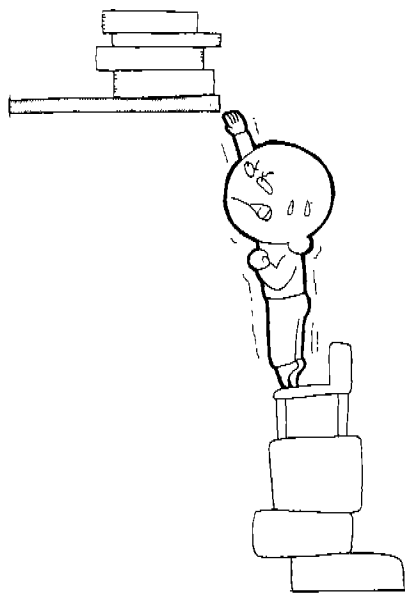
“공부해서 남 주니?”

“공부 못하면 짱통차기 꼭 알맞아.”

“네가 대학 못가면 가문에 먹칠 하는 것이야.”

이제는 이러한 물상식하고 비교육적인 말로 자녀를 좌절하게 해서는 안된다. 부모가 먼저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허상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하면서 자녀가 건전한 인생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때에 개인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실력이 모자라요



“공부 좀 재발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노력은 99이고 영감은 1이란단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거나 학업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들이 놓칠세라 하는 말들이다.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을 놓고 공부 안해서

못한다고 나무라지만, 사실 공부는 안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선을 다 해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공부에만 매어 달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성장하던 과거처럼 공부를 좀 한다고 성적이 많이 오르고, 안한다고 성적이 뚝 떨어지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적이 쑥쑥 오르는 시대가 아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며 그 영향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지능지수가 높다고 다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지능지수가 좀 낮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니다. 지능은 높지 않지만 창의력이 높은 경우에 공부를 잘 할 수도 있다. 개인의 지적 능력만이 성적을 결정해 주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높아도 마음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 학업성적을 낼 수가 없다.

또 해보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때도 능력은 오르지 않는다. 학업성적을 내는 일은 지적인 능력에 성격적인 특징이 복합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 창의력, 학습과제마다 다르게 요구되는 학습 능력, 성취해 내고자 하는 성취동기,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포부수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자신을 판단하는 자아개념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 내는 것이 학업성적이다.

우수한 학업성적을 낼 수 있는 지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나는 잘해 낼 수 없는 학생’이라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학생은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한다고 별주고, 위협하고 경고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꾸짖는 방식

으로 자녀의 성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벌주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자녀를 가능성의 소유자로 보고 격려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중·고등 학생 정도가 되면 이미 과거의 학업에서의 성공, 실패의 경험에 의하여 학업능력이나 태도 같은 것이 많이 안정되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중학교 때까지 아주 못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 하는 학생은 이제는 거의 없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 하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이를 수는 있지만 ‘7전 8기의 용기로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녀에게 오히려 불안감과 부담을 안겨준다. 자녀의 학업성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소질이 어디에 있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녀의 소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지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학업성적이 나쁜 것을 공부 안했기 때문이라고 너무 단순화 시켜서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너무 점수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따지 못하는 자녀가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모든 아이가 모든 과목을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이 원래의 학습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는 무시한 채 무조건 성적을 등수로 서열화해 버린다. 점수와 석차로 학생을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한 반이나 전 학년에서 ‘너는 몇등 짜리이다’라는 식으로 석차를 매겨주는 한에 있어서는 언제나 좌절과 자포자기를 해 버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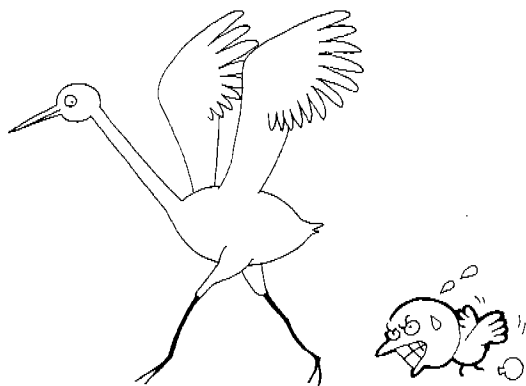
수밖에 없는 학생층이 생기기 마련이다. 성적과 관련해서 학생을 때리고 야단치는 일은 오히려 학생의 학습의욕을 꺾고 자신감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다. 때려서라도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자아의식이 싹튼 청소년 연령에는 효과가 없는 방식이다. 오히려 어른의 거친 행동 때문에 부수적으로 적대감과 공격성을 키워 줄 따름이다.

모든 과목에서 좋은 학업성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극소수의 학생만이 해 낼 수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자신의 자녀도 그렇게 해 내도록 강요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를 인정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잘 하는 학생을 본 받아서 너도 그렇게 해 보아”하고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지도방법이다. 물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썩히지 말고 잘 개발하도록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중·고등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고 실력 발휘를 못하는 이유는 교과목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실력을 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도 있고, 학교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차원 문제도 있다. 과목의 수는 많고 배당 시간에 비해 이수 단위와 학습내용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는 학습부담이 지나치게 많다. 교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있는 몇 개의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 할 수가 없고 전체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해야 한다. 과목 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의 능력, 취미, 적성은 배제된 채로 많은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된다. 미국, 영국, 서독 같은 선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과목수가 우리나라의 반 정도이다. 선진국에서 10개

정도의 교과목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5~26개의 과목을 두고 있다. 과목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을 재는 데 있어서도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 경쟁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이 좋아야 실력이 있는 학생으로 평가된다. 학생의 실력이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에서 판가름이 나고 있다. 실력의 평가기준을 국·영·수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국·영·수는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하는데 도구가 되는 소위 도구과목이기 때문에, 대학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다수의 학생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유용한 실력과는 무관한 것이기 쉽다



고등학교에서의 국·영·수로 편중된 수업과 학습풍토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학교공부 전체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 버리게 만들어 소위 실력없는 학생이란 소리를 듣게 만든다.

학생이 실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개인의 노력 여하로 돌리기 전에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먼저 보아야 한다.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교육과정 상으로 63%, 대입학력고사 상으로는 59.3%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이 국·영·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국·영·수 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은 상당수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대다수의 학생은 실력이 없는 학생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전체 학생 중에서 절반이 채 안되는 학생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학습내용을 모든 학생에게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이다.

그리고 학습내용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영·수 과목이 학생들에게 공부에 관심을 잃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생님 한 분이 50~60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기대할 수가 없다.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국·영·수 수업과정에서 따라갈 수 없는 2/3 정도의 학생들은 사실상 제대로 설 자리가 없는 셈이다. 학생의 실력이란 현재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 과정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고 그 안에서 평가해야 올바른 것이다. 공부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공부 그 자체가 목

적이 되어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쁨과 보람을 찾고 실력을 쌓아가도록 해주며, 또 그것을 실력의 평가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싫지만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 점수 만으로 개인의 실력을 평가하는 분위기는 점차 퇴색해 갈 것이다. 현재와 같은 평가기준으로 학교에서 좋은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우대 받는 분위기가 많이 고조 될 것이다. 어느 한 분야에 꾸준한 관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여겨진다.

현재 입시위주의 틀에 박힌 학과공부와 잦은 시험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채 수동적으로 주어진 여건을 추종하기에 바쁘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과 성적에 대하여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나타낸다. 개인의 적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일은 한두 번의 적성검사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해 봄으로써 찾아진다.

학부모는 현재 학교가 자녀에게 내리는 평가에 너무 집착하여 쉽게 자녀를 포기하고 판단하기 보다 자녀가 무엇을 해 낼 수 있을지에 관하여 폭 넓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성숙성을 보여야 한다. 학교 점수만이 실력인 것은 결코 아니다. 학교 점수 때문에 지나치게 실망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자녀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켜봐 주는 자세와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하겠다. 부모가 자녀를 가능성의 존재로 인정해 줄 때 자녀는 도전의 용기로 자신의 일생을 위해 필요한 실력들을 쌓아 갈 것이다.

우리는 공부만 하는 로봇인가



“우리는 우정없는 점수기계들이다.”

“공부만 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들이다. 대학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대학입학시험 훈련이 시작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 이외의 다른 모든 것

과는 답을 쌓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 교외활동이나 친구 사귀기, 취미활동, 집안일 같은 것은 공부에 비하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들로 여긴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공부만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청소년기는 일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험해 보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교공부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아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생활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숨막히는 듯한 일과로 짜여져 있다.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가 없다. 청소년기를 청소년기답게 의미있게 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일과를 보면 하루에 평균 12시간 내지 14시간을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의 경우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잠자고 밥먹는 시간 이외에 18시간 내지 19시간을 공부에만 매달린다. ‘4당5락’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4시간만 잠을 자야지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초조해 할 정도로 공부에 매달린다.

오전 7시에서 밤9시30분까지 학교에서 책상에 붙어 앉아 있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집에 와서 TV파워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곧장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입시생의 생활이다. 남이야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입시생의 일과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정도가 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선생님, 집에 다녀 오겠습니다.”

15시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학생이 하는 웃지

못할 인사이다. 이런 인사가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로 바뀌어야 하고, “부모님,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로 바뀌어야 청소년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 만 해야지” “학생이 다르게 할 게 뭐 있니?!”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청소년들은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찌들고 또 병들어 가고 있다.

청소년들이 수험준비를 위해서 점수별레가 되도록 강요당하는 오늘의 현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공부가 지긋지긋하고 학교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없지만 별수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다양하게 개발시켜주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학교가 입시를 위한 공부에만 체적질을 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와 시험과 성적에 대하여 매우 큰 두려움을 나타낸다.

모든 학생이 공부에 매달리지만 어차피 70%의 학생들은 틀려 리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하여 느끼는 공포나 불안은 결국 대다수의 학생에게는 좌절내지 자포자기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영·수 위주로 진행된다. 학력고사 총점 320점에서 59.4%인 190점을 국·영·수가 차지한다. 학교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려 하면 학부모의 비난이 빗발친다. 제발 시험공부만 시켜 달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하루 전체를 공부에 매달리면서 패배감에 사로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가 모든 학생을 인간적으로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합격으로 학교를 빛내줄 수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특별 배려를 하고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을 사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을 통해서 업적을 달성하는데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학교수업이 공부 잘 하는 학생위주로 진행되고 학교 도서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권리도 공부 잘하는 학생 순서로 주어진 다. 고3 2학기 정도가 되면 성적이 중간 이하의 학생들은 더욱 팔 시를 당하게 된다. 수업시간에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하고 교사의 관심 밖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학교 가도 팔시 받고 집에서도 팔시 받는다.

“행복은 성적순이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인 세상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어른들의 이와같은 주장 속에서 학생들은 학력고사에서 1, 2점이라도 더 따려고 안간힘을 쓴다. ‘공부만 하는 로봇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1988년 한 해 동안에 126명의 중·고생이 자살을 하였다. 최근 몇 년동안 청소년 학생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공부만 강요하여 생활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오늘날의 학교교육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입시전선 우방 없다.”

이런 표어를 내걸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정도로 고등학교는 비정한 입시경쟁장이 되어 버렸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은 한 반에서 별로 친한 친구가 없다. 급우와 우정을 나눌 여유도 없어져 버렸다.

한 학생이 ‘국민교육현장’을 ‘고교교육현장’으로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면서 교묘시절의 점수따기 경쟁교육을 풍자하고 있다.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학교에 들어왔다. 선배의 빛난 입시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타도에 이마지 할 때다…… 열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교육은 청소년을 공부벌레로 만들어 버렸다. 대입경쟁에서 3/4의 학생은 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은 소수에게 유리하고 다수에게 불리한 교육이다. 다수를 실의에 빠뜨리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공부벌레가 아닌 지·덕·체의 조화를 갖춘 즉 전인적인 인격으로 성장 하도록 도와주는 길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보장해 주는 일이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자유시간이 거의 없어 ‘먹고 자고 공부만 하는 청소년’이다. 놀지 않고 공부만 한다고 잘 자라나고 미래가 건강하게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부에만 매달리고 인간적인 성장 같은 것은 무관심한 청소년들 마음속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한 인간적 성장을 위해 학교는 공부만 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마당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공부는 필수적이고 여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기에는 여가 활동이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한 활동이다. 선진국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각종 문화 시설을 제공해 주고 캠프나 여행을 위해서 산속에다 ‘청소년의 집’ 같은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은 국가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잘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선진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은 여가를 즐길 시간도 없고 즐길 데도 없다.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가 공부 이외에 다른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는데 대하여 청소년들은 높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미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모의 생각을 일단 말없이 수용하지만 사실 청소년들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하다. 공부 때문에 갖는 부담감은 큰데 그

부담을 털어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기회만 닿으면 터져 버릴 수 밖에 없는 시한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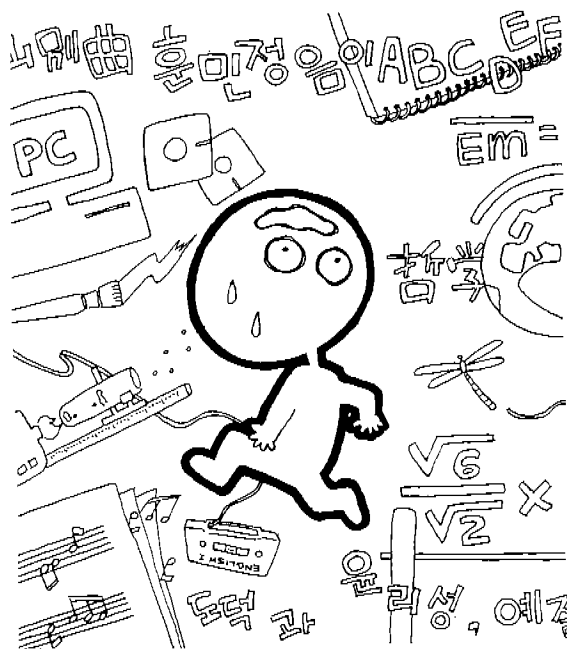
여가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 본 한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생활의 활력소로서, 심신의 휴식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공부의 능력을 위해서 여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 부담과 쫓기는 시간 생활과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가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여가는 FM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나 캠프 같은 일상생활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는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는 청소년을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만 하는 바보’로 기르면서,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공부 안하고 놀면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기 때문에 비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을 공부만 하는 로봇으로 묶어 놓는 한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에는 여가활동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취미 활동을 하고, 독서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캠핑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을 ‘공부만 하는 바보’로 길러 출세시키는 것 보다 ‘건전하게 놀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이 ‘입시위주의 공부만능 풍토’를 몰아내는 데 하루빨리 앞장서야 한다.

교육도 백화점 식인가



“여러 과목을 골고루 공부 하면 좋은 것이지.”

“과목이 많으면 많이 배워서 좋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너무나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많은 종류를 많이 알면 좋은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과목수가 많다고 많이 배우고 잘 배우는 것은 아니다.

외국 고등학교 과목수에 비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과목을 배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은 인문계 고교가 26과목, 자연계 고교가 25과목이다. 이는 선진 외국의 것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수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과목수의 절반 정도를 배운다. 미국에서는 9개, 영국에서는 12개, 서독은 9개, 프랑스는 14과목 정도를 배운다.

백화점에서 물건 늘어 놓듯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많은 수의 교과목을 백화점 모양으로 늘어 놓은 것이 도움을 주기보다 폐해를 주기 십상이다.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학습부담이 너무 크고 주어진 모든 과목을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심화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이 어느 분야에 쏠려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선진국 처럼 적은 과목 수를 깊이있게 공부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교과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재미를 느끼는 공부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단편적인 지식들을 외워서 시험을 치루어내는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암기교육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게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열되어진 교과목을 골고루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입시와 관련된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과목들은 가뭇씩 건드려 보는 정도가 되었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고 늘어 놓고 실제로는 입시 과목 위주로 교과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교과과정을 개편할 때 우선 과

목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입시과목에 치중하는 교과과정 운영이 없어야 한다. 적은 과목수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적은 과목수는 비중을 같이 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고등학생의 책상위에 꽂혀 있는 책들은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뿐이다. 교과서 보다 평균 2~3배의 많은 참고서가 진열되어 있다. 이 책꽂이엔 시집, 소설, 위인전, 수필 같은 책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평균 고교 3년동안 32권의 교과서와 고3 일년 동안 60권 정도의 참고서와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와 씨름한다. 진열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 잘 팔리는 것은 입시과목이고 잘 안팔리는 책은 교과과정에는 들어있으나 학교 자체가 관심있게 가르치지 않는 과목들이다.

학생한테는 모든 교과목이 골고루 잘 팔려도 너무 공부해야 될 것이 많아서 부담이 되고 잘 안팔려도 부담은 마찬가지이다. 학교가 여러 과목의 수업을 짜놓고 실제로는 입시 위주의 특정과목을 다른 과목시간까지 써 가면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혼란을 겪는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내는 방식도 백화점 식으로 단편적인 지식들을 외우고 있다. 사실 공부는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닌데, 현재 학생들은 객관식 시험에 낯만한 것들만을 골라서 외우기 작전으로 공부를 해낸다. 어떤 것은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기계적으로 암기해 버린다.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가 전체 공부 중의 일부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공부가 공부의 전부가 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교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공부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종합하고 비판, 분석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또 새로운 것을 착

안해 내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너무 지식의 암기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잘 소화되어 자신의 것으로 자리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 위주로 흐르고 일방적인 주입식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은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문제가 객관식 위주의 사지선다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주관식의 문제로 학습성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우고 골라서 정답을 찾아내는 쪽으로만 공부가 기울어 질 수밖에 없다.

예를들어 국민윤리 과목은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윤리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있는 과목인데 이 과목에 나와있는 내용을 줄을 그어가며 외우다 보면 단편적인 지식에 얽매어서 윤리의식이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된다. 대표적인 암기과목의 하나인 역사과목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역사의식이 생겨야 하는데 역사 공부를 너무나 사건과 연대 중심으로 외우다 보면 역사의식이 생길 여지가 없어진다. 지리 같은 과목도 너무나 외우기 공부식으로 해내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길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우리가 쉽게 암기과목이라고 부르는 과목들이 사실은 암기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되는 과목들이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지식의 암기는 객관식 위주의 시험을 치루어내는 데는 필수적이겠지만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의미를 깨내는 데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암기과목이 시험을 위해 암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삶에 대한 신념을 불어 넣어 주고 신념에 터해서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

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공부에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막연하게 학생의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심정으로 공부에 임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지금은 너무나 수단적인 역할에 치우쳐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재미도 없고 절실한 필요도 느끼지 않는 공부를, 시험을 쳐서 점수를 따내야 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며 그 공부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은 접어둔채 무조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공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불안과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앞



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생활의 의미와 보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점수를 잘 따내기 위해 문제집과 참고서에 매달려야 하고, 미처 시간이 부족해 참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날카봐 조바심이 나서 우선 참고서라도 구입하는 것이다. 엄청난 수의 참고서가 학생에게는 지나친 중압감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만저만한 교육의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싫든 좋든 학생들이 해내는 공부가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을 일등에서 꼴등까지 다시 한번 진열해 놓는다. 학생들이 원래의 수업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석차를 매겨서 평가해 버리는데 그치게 된다. 학교는 점수에 관심을 두기 보다 그 점수가 전체 학생 중에서 몇 번째 인가를 순서 매겨 주는 일에 너무나도 철저하다.

학습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이 전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주로 평가하는 제도를 상대평가라 하고 이는 흔히 석차로 나타난다. 상대평가제와는 달리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를 절대기준 평가라고 한다. 위의 두 평가제도 중에서 우리나라 학교는 상대 평가제로 학생을 평가하고 있다. ‘너는 몇등짜리이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은 곧 학생들에게 ‘나는 몇등짜리 인생이다’라고 자신을 평가해 버리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제가 갖는 비교육적인 요인이 학생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교육의 성과를 등수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녀의 등수를 모르면 학부모는 궁금해 하고 초조해 한다. 남을 어기고 등수가 좋으면 안심하고, 남보다 등수가 뒤지면 걱정을

한다. 교육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등수가 아니며 개개의 학생이 학습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등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소망이다. 원래 등수를 매겨주고 석차를 게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교육적인 의도가 살아나질 못하고, 점수로 인간을 평가해 버리는 것이 되어 버렸다. 학생의 성적을 일렬로 세우는 교육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주인공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틀러리’ 인지를 쉽게 판단해 버린다. 오늘의 학교가 온연중에 성적 제일주의를 표방하고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신을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쉽게 생각해 버린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목들을 시험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필요해서 의미있게 공부하도록 중등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공부하고 시험치는 방식도 암기식, 주입식을 벗어나 분석하고 비판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객관식 위주의 시험문제가 주관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석차를 매겨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석차 게시제도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입시위주의 점수따기 교육을 탈피하고, 백화점식의 교육을 벗어날 수 있을 때에 청소년의 건강한 인간적 성장이 보장될 것이다.

체벌은 사랑의 매인가 폭력인가



학교 교육에서 체벌의 문제는 그 찬반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우리의 십대 자녀들이 겪고 느끼는 체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체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저녁 자율 학습 시간이었다.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꺼풀이 무겁기만 했다. 자율 학습이니까 조금 자도 괜찮겠지. 여유있는 마음으로 책상에 엎드려 소롯이 잠이 들었다. 무척 단꿈을 꾸었나보다. 그런데 돌연 뺨에서 마찰음과 함께 아픔이 느껴졌다. 찰싹. 눈을 번쩍 떠보니 감독하던 당번 선생님이 매서운 눈초리를 한 번 주고는 옆반으로 훌연히 가버렸다. 놀란 눈으로 선생님의 뒷모습을 허망히 바라보면서 눈물이 핑그르 돌았다. 굳이 뺨을 맞은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뺨을 맞을 만큼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다. 분명히 ‘자율 학습’인데……. 무의식 상태에 있는 학생을 선생님은 꼭 따귀를 때려 깨워야 했을까? ‘여학생들의 예민한 수치심을 왜 모를까? 선생님은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C여교 7양)

‘자퇴’

우리 담임 선생님을 연상케 하는 말이다. 아침에 몇 시까지 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불평이라도 하면, “하기 싫으면 자퇴서 써, 쓰고 나가면 되잖아! 너희 없다고 학교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애?”

혹 뺨지를 안달면, “이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창피해? 그럴걸 왜 다녀? 자퇴서 쓰구 나가면 되잖아!”

성적이 떨어지면,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하면서 학교는 왜 다녀.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일찌감치 공장엘 들어가든지 자퇴서 쓰구 나가!”

하여간에 뭐 하나라도 당신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자퇴서 얘기부터 나왔고, 선생님께서 “~하기 싫으면” 하시면 이제 우리가 먼저 “자퇴서 쓰구 나가”하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또 하나 담임 선생님을 연상케 하는 것은 기다란 탁대기다. 아침자율 학습을 하다가 문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 영락없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다. 언제 어디서나를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시고 때리시면 깜짝깜짝 놀라서 공부가 더 안된다.

“말 안 들으면 그저 패야 돼”하시면서 지각하는 아이들을 교실도 아닌 교무실로 불러다가— 그것도 꼭 선생님들이 안계신 점심 먹기 바로 전이나 3교시 후에— 그 큰 목소리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꾸중을 하시면서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매리신다. 그 때마다 교무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지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마치 선생님들은 관객 같고 우린 무대에 혼자 서 있는 것만 같다.

우리들에게선 이미 사랑의 매라는 말이 없어진 지 오래다. 내가 너무 비약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퇴서나 매는 차라리 험박에 가까웠다. 그렇게 당하고 나면 지각하는 아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건 진정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깨우침에서가 아니라 그저 공포에서 벗어 나려는 것 때문이었다. 마치 서커스단의 동물들에게 공포를 줘서 주인 맘대로 길들이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매에만 길들여져서 자신의 생각은 아예 물어버리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다. 그렇지만 단 한번도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음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일까?’하고 자문하고 있다.

체벌의 비민주성과 비인격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주장은 ‘사랑없는 체벌은 바로 폭력’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체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맞는 아이만 맞는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공부 잘하고 개성없는 아이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겠지’라며 이해가 되고 평소 찍힌 아이의 작은 잘못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욱 선생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우리들 사이에도 모범생과 문제아의 구별이 생겨 이 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애정없는 비판은 비난이다. 그렇듯이 사랑없는 체벌은 다름아닌 폭력이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신의 감정 폭발로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흔하다고 솔직히 시인한다. 그렇다면 우리

들은 한낱 선생님들의 기분 에 따라 좌우되는 희생물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도무지 교육의 주체가 누군지조차 혼동이 되는 요즈음이다. 선생님들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별 생각없이 패를 들었을지 몰라도 맞는 우리로서는 사무치게 가슴의 멍이 되는 것이다. 가장 예민한 사춘기 소녀의 뺨을 때린다거나, 남녀 공학의 경우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지독히 무식한 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도 그렇다. 패를 맞는 아픔은 잠시지만 우리들 어린 가슴에 낙인 되는 상처는 영원히 지우기가 힘든 것이다.

개성을 말살하고 순종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의 비참한 교육 현실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학생부 혹은 지도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학생부란 학교의 규율에 따라 학생들을 획일화시키기 위해 단속, 규제하는 기관이다. 명칭은 학생부지만 선생님들의 기관이다. 자율성에 의지하여 학생들을 선도하기 보다는 즉시 개입하여 교칙에 따라 처벌하고 구속하는 등 강제성이 짙다. 자유와 자율, 그리고 개성을 깨우치는 민주적 생활 태도를 습득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부를 통해 몽둥이의 위력과 금전의 효과(?) 등을 익혀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교사가 공공연히 학생 주인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비민주적이요 비양심적인 체벌로부터 우리 학생들은 보호 되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어느 누가 우리들의 가슴 찢기는 이야기들을 들어주겠는가? 진정 눈물로 이해해 주는 이는 우리 학생 자신뿐이 없다.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며 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만 한다.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있듯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힘있는 학생회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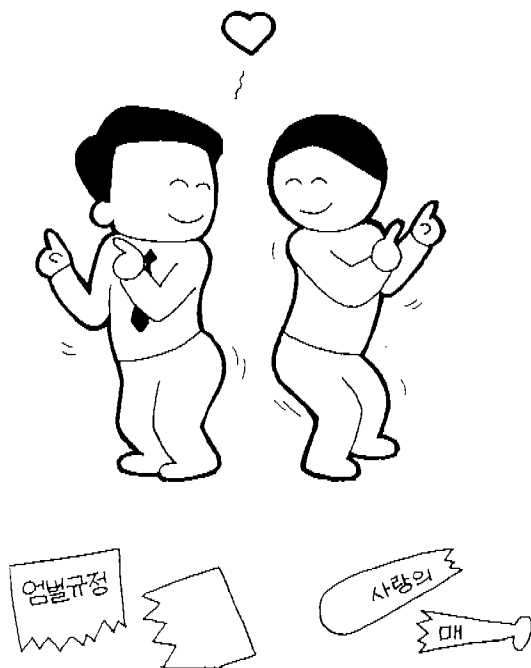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려야 말을 들어.”

아이들 앞에서 얼굴도 붉히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이 우리에게 주입시켰던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망발이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다. 진정 우리들은

개, 돼지처럼 맞아야만 말을 듣는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참모습을 보여주자. 우리들 스스로 학생회의 힘을 길러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공동이를 둔 많은 선생님들에게 알려 드리자. 학생회만이라도 활성화 되어 진정 우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우리들의 작지만 간절한 바램이다. 또한 그 바램대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민주화가 주장되면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체벌이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체벌은 학교 교육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따라서 체벌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논란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체벌에 대한 찬반론은 여러가지이지만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를 살펴보자.

우선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체벌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밝고 긍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체벌을 경험하면 체벌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을 찾아내려는 부정적 지능을 개발하게 된다고 한다. 셋째, 자기가 체벌을 받음으로써 남에게도 체벌을 가하는 습성이 생기게 된다는 체벌 경험의 악순환—이는 마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역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우리 전래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거나 혹은 체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첫째, 부정한 혹은 옳지 못한 행동을 억제하거나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고, 둘째,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의 강도를 높일수 있으며, 셋째, 학교에서와 같은 집단적 학습 여건에서 효율적인 학생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학교 교육에서의 체벌 문제를 놓고 국민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학교 교육에서 체벌을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32.3%(반대한다 16.7%, 반대하는 편이다 15.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체벌을 찬성하는 의견은 43.3%(찬성한다 19.1%, 찬성하는 편이다 24.2%)이며, 체벌에 대해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의견은 24.3%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 교육에서 체벌을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10% 포인트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 시사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체벌을 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벌이 교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오히려 찬성 쪽에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아마 학교 교육을 하나의 극기의 장이나 수양의 장으로 보려는 전통적 사고 방식의 소산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 교육관에는 전통적인 교육관과 현대적·서구적인 교육관이 공존하고 있는데, 체벌에 관한 한 과거 ‘서당 시대’에 어울리는 사고 방식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학교는 기본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키워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 중 하나 일진대 이를 무시한 비도덕적, 비인격적 체벌이 허용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는 점을 여러 교육 관계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다시 우리 학생들의 논리 정연한 주장에 귀 기울여 보자.

“회초리를 들고 있는 훈장님의 언짢은 표정, 종아리를 맞고 눈물을 흘리는 어린 학동의 모습, ‘서당도(書堂岡)’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은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재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이다. 공부를 못하고 장난을 치면 무조건 매를 맞게 된다는 법칙. 그것은 사회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오히려 더 비민주적이고 가혹한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는 듯하다.

수천 년 전부터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교육에는 매질이 항상 수반되어 왔다. 그러나 좀더 수준높은 가르침의 방법이 생겨나면서 체벌은 이미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벌의 방법이 당연시 되어왔다. ‘무조건’이라는 보수적 사고 방식 아래, 선생님은 학생을 때려야

만 한다는 주장은 “말로 해서 안되는데 어떡하느냐”는 억지 소리를 업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말이 수십 년 간 수업 시간에 때를 맞고 커온 선생님들의 세뇌된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북어와 조선놈은 패야 낚’이라는 끔찍한 말까지 인용해 가며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시는 것이다. 이 그릇된 생각이, 마치 일본 침략기의 교사들이 차던 칼처럼, 오늘의 우리 선생님들의 손 안에 있는 몽둥이의 섬뜩함을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체벌은 엉터리 말로 변호 되어왔고, 그릇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세뇌해 버렸다. 이미 10년을 넘게 주어진 교육과정 속에서 커버린 나도, 막상 때를 맞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착각 할 수밖에 없음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상이 있는 만큼 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벌이 가혹한 매질 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양심의 가책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을 체벌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앞 세대를 보자. 위법과 부정, 비리……. 눈에 띄지 않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할 수만 있다면 하등 양심의 가책없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최근까지의 역사 속에서 잘 보아왔다. 청소년기의 교육에 이런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거기에 체벌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처음엔 자발적이었던 행동이 점점 채찍의 아픔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저지룰 수 있는 시행 착오에 대한 가혹한 벌이 반성을 불러 일으키기는 커녕 아예 시도와 노력의 동기마저 꺾어 버린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GNP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2천년대의 우리나라 국민이 가혹한 체벌로 굳어버린 의식을 지닌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그토록 떠드는 2천년대 선진 조국의 이상일 수 있을까?

‘몽둥이 때문에 무서운’ 선생님의 따귀에 고막을 잃고, 날아오

는 의자에 앉아 죽는 모습이 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국의 학생. 피가 맺힌 엉덩이 때문에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글씨를 쓸 수 없도록 부어오른 손바닥을 물로 씻어야 하는 우리의 미래에, 방금 흠뻑 두들겨 맞은 그 매가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까? 또 좋은 교훈을 얻은 학생이 있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늘 배우거나, 모름지기 민주 시민의 자격에는 스스로 생각하여 참여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매질을 하고, 그 매를 맞고 큰 학생이 또 그 제자에게 매를 휘두르는 악순환 속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이 커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 속에서 불이 타는 것 만류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양심에 따르고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악의 꽃을 억누를 수 있는 진정한 자운 인간의 실현을 위해 체벌은 지양되어야 한다.”(고2년 K군)

생각컨대,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태도와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의 정도는 상당히 크며, 한 선생님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에 따라 학교 생활전체가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선생님과 학생간에 오고 가는 신뢰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선생님에 대한 존경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비록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만들기 쉽다.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학생에게 변명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랑과 인내를 가짐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체벌을 당하는 학생이 체벌을 가하는 교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육적인 의도에서 나오는 체벌이라 해도 그것은 이미 아무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침 조회 시간이면 그 전날 자율학습, 보충 수업에 빠진 친구들 매맞는 것으로 시작해 자율 학습(사실은 타율 학습)시 떠드는 학생 매 맞는 것으로 하루가 끝난다”는 어느 고3 학생의 말이 있다. ‘체벌의 일상화’는 단지 ‘매맞기의 습관화’를 조장할 뿐 교육적 배려를 찾아 보기란 힘들다.

끝으로, 체벌에 대해 선명한 인상을 주는 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글을 소개한다.

“나는 시험이 무섭다
시험보고 매맞고
통지표 받고 매맞고
내 다리 장한 다리”

(국5년 K양)

“꼴칫거리
학교 일에 잘 협조하지 않는
우리는 큰 꼴칫거리들이죠
꼴칫거리에는 주먹이 최고라나요”

(중3년 C양)

잔소리가 아닌 대화가 그리워요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또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도 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과 거친 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정이 듬뿍 담긴 부모의 말 한 마디는 자식과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

해 줄 수 있다.

사실상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과 예정어린 관계 속에서 건전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부모들의 이러한 소박하고 본능적인 바램조차 이루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선 자녀들과 마주앉아 한가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쉴 새 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부모들은 또 부모들대로 바쁘게 살아가노라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일쑤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점점 넓은 간격이 생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부모와 자녀를 한결같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무적이고 의례적인 말만을 간단하게 전달할 뿐이다. 서로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나 미묘한 감정 등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거기다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걸고 있는 기대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고 있는 희망이 현실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서로 걸들거나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기 마련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청소년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 생활에 대해 쓴 것이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라는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집이 싫고, 부모가 싫다고 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나, 하루 하루가 정말 아까울 정도로 부족한 나는 학력고사 임박의 소리가 철썩 철썩 들려오는 듯 하다. 그래서 방과 후에 곧장 책상앞에 앉지만 졸음도 오고 해서 좀 쉬고 싶은 때도 있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책을 잡는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좀 쉴 때 어머니는 나한테 ‘공부 안하니?’라고 하신다. 그 때 나의 마음은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 신경질이 난다. 나는 어머니에게 마구 신경질을 부린다. 다시 책상 앞에 앉지만 신경질도 나고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공부가 잘되지 않는다. 나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내가 신경질을 내면 내색은 하지 않으시지만,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나의 경우 공부는 사실 하기 싫은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판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나를 공부하는 로보트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공부하라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것은 나도 인정하나 나는 로보트가 되기 싫다.

초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자면 잔소리를 듣기 일쑤이다.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나, 나는 공부의 노예가 되기 싫다.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부모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신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간 후 기분 좋게 놀라는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나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또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 와서 나가려고 하면 잔소리를 하신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은 내가 이해를 하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한다.”

“부모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공부만 강요하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커서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항상 듣는 나로서는 지겹기만 하다. 공부란 강요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어도 주변에서 강요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이다. 부모님께서도 아직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강요당한 공부는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이다.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서 우리나라와서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도 나대로의 인생이 있으므로 부모님께서도 공부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좀 더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시험을 보고 통지표가 올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또한 엄마는 저를 믿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저를 무시해 버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저는 너무도 슬퍼집니다. 그런 날 저녁이면 제 방에 누워 불을 끄고 소리없이 혼자 읊니다. 엄마의 가지돌린 달 한 마디를 들을 때마다 전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생활에서 아이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것이 바로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라고 했다.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학교와 한편이 되어 성적과 공부의 고패를 사정없이 잡아 당긴다. 어머니는 결코 내 편이 아니다.

아이들은 할 수 없이 권닝을 하거나 성적표를 고쳐서 부모를 속이든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지긋지긋한 집으로부터 벗어나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방황하기도 하며, 심하면 가출하거나 자살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

하면서 말이다.

십대 청소년들과 많은 상담을 해온 어느 상담 전문가는, 가정 생활에 관한 상담 편지 속에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였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미없이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개는 그 상처로 인해 가출이나 죽음을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장 큰 수단은 ‘말’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게 일방적으로 오고가는 것이 또한 ‘말’이다.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와 꾸중을 별 부담없이 한



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별 의미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틀에 맞추어 듣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관심과 염려의 말로 들리는게 아니라 그저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다.

다음은 학부모를 위한 진로 교육자료에 제시된 대화의 형태들이다.

이 열 가지의 대화 유형은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투이면서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1. 설교형-논리적 설득을 통하여 어른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말투

“어렸을 때 성실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2. 심문형-자녀의 심정을 넘겨 짊고 다구치는 말투

“나는 네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 바르게 말해 봐!”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3. 조소형-자녀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간접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투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꼴이 그게 뭐냐.”

“너 바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니? 제법인데!”

4. 복고형-부모들이 자신들의 옛날 시절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말투

“내가 자랄 때에 비하면 너희들은 얼마나 호강하는지 아니? 부모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학용품도 용돈도 절약해서 부모님 힘을 덜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

5. 위협형-자녀를 협박하여 그의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말투

“또 다시 이런 실수를 해 보라, 너한테 이로울 것 하나도 없

어 !”

“다른 집에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시키는 대로 안하면 혼날 줄 알아 !”

6. 비교형—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자녀로 하여금 수치심, 부끄러움,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말투

“너의 형(동생)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

“아무개와 반 만큼이라도 따라 해 보렴.”

7. 충고형—자녀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말투

“아무개와 함께 집에서 공부하지 그러니 ?”

“그런 일은 형에게 물어보렴.”

8. 회극형—저속하고 품위없는 말투

“친재 좋아하네, 웃기지 마”

“야! 착각 하지마, 건방지게 꿈은 야무지네, 정신차려.”

9. 과잉 보호형—자녀를 지나치게 감싸고 도는 말투

“이건 내가 다 할테니 넌 가서 공부나 해라.”

“너는 잘못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네 친구들이 정말 나쁜구나.”

10. 교정형—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말투

“지금 놀 시간이 어딴니 ? 공부해라.”

“넌 아직 어려, 그런 곳에 다니지마.”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다 해도 위에 제시한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으며 반감과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뿐이다. 부모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자식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자식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떻게 말을 해

야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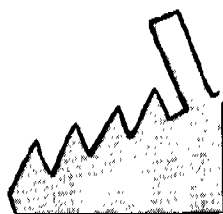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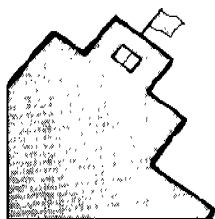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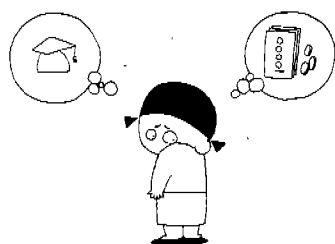
“너는 내 자식이니까 공부나 성적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는 애정 표현은 휴식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가정의 역할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가정은 경쟁 사회의 연장이어서도 안되고 학교의 연장이어서도 안된다. 자녀와 마주앉아 인생에 대한, 공부에 대한,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자주 가져야 한다.

피터스는 미국 미주리주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인물을 조사했는데, ‘부모’가 어떤 인물보다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신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되며,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의 장점이나 재능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준다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고 위안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의 가정이 될 것이다. ‘

진학인가 취업인가



“대학에 안가면 뭐 하면서 살거니?”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할 게 없잖니?”

“실업고만 나와서 취직한다고 인간대접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염려하면서 흔히 오가는 이야기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충분히 직업전선에 종사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학하여 무조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 모두가 대학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학입시에서 실패를 하면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삼수를 서슴치 않는다. 재수나 삼수가 대학입학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무조건 이 길을 택한다. 인문계 학교 출신은 물론 실업계 학교 출신도 모두 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원래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전제로 진학한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준비보다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실업계 학교가 대학 진학반을 따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졸 출신자들의 취업률 보다 실업고 출신들의 취업률이 훨씬 높다. 1988년도 실업계 고교 출신들의 취업률은 74%로 대부분이 졸업생들에게 취업이 보장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이러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고교에서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매우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업고에서 20~30%의 학생들이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업고는 원래 대학입시 위주로 교과과정이 짜여져 있지도 않고 또 입시준비 위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어차피 대학 진학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취업에도 불리하고 진학에도 불리한 경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학 선호 바람 때문에 매년 인문계 고교생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실업계 고교생의 수는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가 인문계는 대학

진학의 길로, 실업계는 취업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정원수가 인문계 졸업자의 수에 엄청나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낙방할 수밖에 없는 수는 전체 지원자의 3/4 정도가 된다.

대학에 떨어진 대다수의 낙방생이 학생도 아니고 취업인도 아닌 유보적인 존재로서 ‘재수생’으로 아니면 ‘할 일 없는 존재’로 우리사회에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존재들이 매년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재수생, 삼수생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소속이 없이 할 일 없는 사람을 대량 배출해 내는 우리의 교육제도는 크게 잘못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이고 손실일 뿐이다.

또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졸업후에 취업이 안되는 고학력의 미취업 현상이 우리사회에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실업고나 전문대 출신의 취업전망이 밝은 것에 비해서 대학출신의 취업전망은 어둡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고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고교 졸업자보다 반드시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고졸자나 대졸자나 단지 개인차에 좌우되는 것이지, 학력 그 자체가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음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다. 이미 지금도 대졸 실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학력자가 되고 보아야겠다는 생각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무턱대고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학에 간 경우에는 취업전망이 더욱 어둡다. 우선 아무 대학이든지 가고 보자는 식으로 대학을 들어온 학생들은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힘

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를 보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인문계와 실업계를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로 구분하려는 태도이다. 인문계 학교는 공부 잘하고 가정이 좋은 집 학생들이 가는 학교이고, 실업계 학교는 학력이 모자라거나 집이 가난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사회에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선입견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급속한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교육을 인문과 실업으로 분리시켜서 사람을 불평등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교육을 인문과 실업으로 철저히 구분하고 직업교육보다 인문교육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한 우리의 심각한 중등교육의 문제는 해결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사회의 안정도 기대할 수가 없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적응해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취업은 대학 못가는 사람이나 집안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차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변화에 따른 추세이다.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사람의 능력이나 신분에 따라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뉘질 수가 없을 것이다. 고졸 출신자들은 누구나 우선적으로 직업적 능력을 소유하도록 교육되어 질 것이다. 재수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한다는 의미 보다는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관이 고등학교 시절에 틀잡혀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인문계로 진학하면 대학으로 진학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대학을 갈 수도 없고 아무런 직업적 능력도 길러주지 못하는 무능력자를 길러내는 현재의 교육은 달라져

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무조건 대학만 가면 미래가 술술 풀려 나가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또 대학 낙방생인 많은 고교 졸업자에 대하여 현재의 교육은 속수무책이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란 구호가 널리 퍼져 있는데, 사실은 재수, 삼수가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는 없다. 재수생의 누적이 대학으로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해주며, 활발하게 성장해야 할 나이에 입시공부에만 매달려야 하는 개인은 보람 보다는 심신이 시들어져 버리는 비참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다가오는 시대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결



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땀땀하고 우리사회를 안정된 사회로 이끄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도 이미 몇몇의 기능직에서는 사무직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비싼 보수를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실업계 고교에서도 인기학과는 스카우트 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을 나와야 인간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앞으로 점점 사라질 것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이 대학 나온 것 못지 않게 보람을 느끼는 날이 이미 열려져 있다. 재수, 삼수 해서 대학을 가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 보다 일찍 취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인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취업과 진학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문과 실업을 구분하지 않고 직업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고졸과 대졸을 구분하지 않고 직업적인 능력과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대학진학도 취업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졸업장을 따내기 위한 대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구든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미래에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성장기에 받은 교육만으로는 직업을 충실히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도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앞으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직업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다. 개인의 삶을 미리 미리 준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삶과 직업과 동떨어진 단편적인 지식의 주입교육은 앞으로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기초학교 4년을 마치면 모두 다 같은 학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여러 종류의 학교를 택한다. 모두들 인문계 쪽으로만 갈려고 하지 않는다. 직업교육의 과정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으며 나중에 자부심 강한 직업인으로서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 과정에서 얻은 자격증과 대학졸업 자격증을 놓고 인간차별을 받지 않으며,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분야에서 전문가요 권위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직업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퍼져있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이고 인간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직업이 개인의 신분을 계급화 시키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교육제도와 의식이 사회변화와 발을 같이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문계를 선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교 수준에서 직업능력을 소유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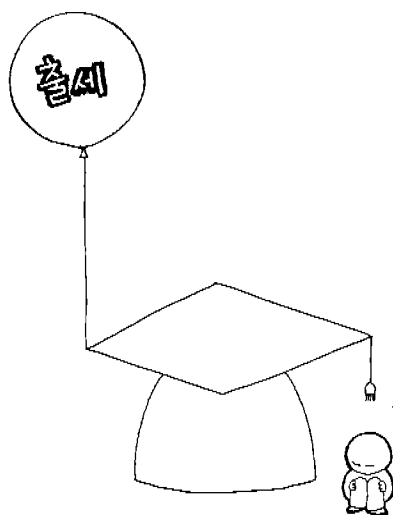
“4년간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받아 그것을 밀천으로 삼아 장사라도 시작할 절!” 대학 졸업후에 취업이 막막한 한 학생이 던진 이 말 속에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이 개개인에게 모두 보람과 의미를 안겨주는 것이 아님을 엿볼 수가 있다.

자녀들에게 고교과정에서 자신의 장래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기회를 준다면 많은 학생들이 취업 쪽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단단한 직업교육 체제를 갖추게 되리라고 기대되며 이런 교육체제 밑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받는 기쁨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진학인가 취업인가’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게 될 것

이다. 고졸자나 대졸자나 취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제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진로 지도에 있어서 자녀에게 과감하게 고교 졸업후 직업의 길로 들어서도록 지도하는 학부모는 의식이 앞선 선구자적인 부모일 것이다. 또 외식있는 부모 밑에서 자녀의 미래가 잘 다져질 수 있다.

대학은 출세의 고속도로인가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풍 처럼 대학 입시 열풍은 해방 이후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온다.

각 대학의 합격자가 발표됨으로써 그 해의 입시 경쟁은 절정을 이루게 되고, 승자에 대한 환호와 패자에 대한 동정으로 이 사회는 다시 한번 술렁이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 교육열은 자녀에게 자아 실현의 기회를 주고, 국가,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높은 교육열은 교육의 내면적 가치보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학벌주의로 흐르기 쉽고 나아가 ‘일류병’이라는 허구적 믿음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한다.

우리 교육의 여러 측면에 관해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학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전체의 76%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학벌을 그다지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 비중은 불과 13.7%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대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는 과열된 교육열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학벌위주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고학력 사회를 향해 치닫하고 있다. 아무리 안그러려 해도 주위 학부모들의 극성, 주변 환경의 영향, 주위 사람들의 눈치나 체면 등으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어려움과 갈등 속에 놓여있는 주인공들은 바로 학생, 즉 학부모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일 것이다.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고 대학에 들어가려는 친구들은 점점 늘어만 간다. 한 반에 20%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대학을 위해 우리의 수업 시간은 존재하고 학교는 존재하나 보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대학에 합격시키려는 학교의 억척스러움에 우리는 고마와 해야만 할 지…… 한 반에 20%정도 되는 대학 입학이 가능한 친구들을 위해 수업 시간이 진행되고 보충 수업, 자율 학습

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80%의 많은 친구에게는 무의미한 수업이다. 하지만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 구실을 한대서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의자에 앉아 있다. 친구들에게 ‘너 왜 대학을 가려고 하니?’하고 물으면 대다수의 친구들은 ‘출세해서 돈 많이 벌려고’, ‘결혼 잘하기 위해’, ‘대학의 낭만과 젊음을 찾기 위해서’, ‘대학은 나오고 봐야 되지 않니’라고 말한다. 지식의 탐구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자기 발전의 대학이 아니라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되는 게 대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건 우리를 자신의 책임만은 아니다.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이런 무시무시한 대학 입시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다. 부모님들도 그러신다. ‘대학만 들어가라, 그러면 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일류 대학, 일류 학과를 졸업해서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 명명거리며 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대학 못 간 친구들은 모두 명징하고 바보이고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필요없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대학만이 전부인 우리들의 암기 위주 교육 과정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으며 사회악을 만들고 전인 교육을 필요없게 만든다(중략).

시험을 잘 보라고 하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시험을 잘 보라고 하는 말과 별 다르게 없다. 시험 때면 컨닝 페이퍼를 만들고 몇 명끼리 서로 계획하는 것은 보통이며 심지어는 답안지, 시험지 분실도 일어나고 밤중에 몰래 교무실에 숨어 들어가 답안지를 고치고 하는 일 등이 종종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른 친구들의 고자질로 발각이 된다. 고자질한 친구들은 그 친구가 부정행위를 해서 나보다 등수가 올라가면 ‘나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로 믿고 누구보다 가까와야 할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다. 시험 잘 보는 요령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혼 낼 수는 없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 적이 되어 경쟁을 한다. 저 친구는 하루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알아보고 나는 그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며 노트를 안 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 심지어는 친구의 책을 몰래 없애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한다.

“방과 후의 자유 시간까지도 보충수업과 자율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여가 선용은 생각할 수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친구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대학을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합니다.”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공부만 해야 하고 교과서만 암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하소연들이다.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공부=경쟁=대학=출세’라는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교실에 갇혀서 — 그것도 좁고 딱딱한, 체격에 맞지도 않는 의자에 앉아서 — 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충 수업, 자율 학습, 심야 학습을 강요당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만성적인 불안감과 노이로제 등의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것 뿐인가? 일일고사, 주말고사, 월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학년말 고사, 모의 고사, 실력고사 등 이름을 열거하기에 만도 숨가쁠 정도의 끝없는 시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겐 저마다 태어난 대로 특기와 개성과 장점이 있기 마련일 터이나, 승패를 가르키는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시험 성적일 뿐이다. 대학에 갈 수 있는 소수의 학생들과 이미 패배가 예정되어있는 다수의 학생들 모두를 향해 대학을 거치지 않은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학 입시라는 유일한 목적지를 향해 학생들을 채찍질 한

다. 누가 봐도 명분이 그럴듯한 ‘하면 된다’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말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진정 학생들을 사랑해 온 어느 선생님의 글은 다시 한번 생생한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교육 현장에 들리는 학생들의 외침은 절박하다. 학생들의 글을 보노라면, 너무도 절실해서 어느 전문인의 글도 그에 견주면 피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느낀다.”

“현재의 점수 위주의 교육 제도를 없애려면 대학 진학 문제를 해결하고, 교과서에는 좀 더 인생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 수 있고 써 먹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이렇게 만든 사회를 똑똑히 알고 싶어요.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은 매일 성적만 부르짖으면서도 텔레비전 대담 같은 곳에 나와서는 인격이 어떻고,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대학에 못간다고 해서 인생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꼬…… 하는 듣기 좋은 말만 내뱉아 놓는다. 그러면서 학교에 와서는 또 매일 공부 잘하는 학생만 위해준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공부를 잘해야지만 쓸세할 수 있는 사회보다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은 날 꼭 일류, 일류 대학만을 가라고 하시지만 내 실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학은 커녕 전문대도 못갈 것 같아요. 십구년 살면서 이런 고통은 처음이에요. 선생님, 난 어떡하죠?”

“우리들 모두가 태어날 때의 소질을 잘 계발해서 그에 대한 지식을 늘려, 커서도 그 능력에 따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죽고 싶은 심정은 아닐텐데…….”

학생들이 장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로지 대학 뿐이고, 세상에 필요한 가치있는 인간이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부모와 교사들은 “앞으로 고3 일년이 평생을 좌우한다. 일년 고생하면 평생 편안하고, 일년 편안하면 평생이 고생이다” 또는 “고3은 지옥이지만 대학은 유토피아다”라는 말로 학생들을 지옥같은 입시 훈련으로 몰아 넣는다.

앞의 선생님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고백은 많은 학생들에게 거

의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

“방학한 지 일주일 쯤은 그냥 보냈다. 부모님은 ‘이제 공부해라, 공부해라’를 잠꼬대로 할 정도로 많이 하신다. 이제는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고 책상에 앉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긴장도 풀리게 되고…… 그래서 담배도 피워보고 여기저기 방황도 해보고, 중심가의 팔차선 도로를 겁없이 왕복횡단할 정도로 술을 마셔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다.”

3학년 학생에게는 학교가 본격적인 입시 훈련장이 된다. 계속되는 모의고사, 그 때마다 조여오는 석차의 숫자, 한없는 프린트 과제물, 더욱 맹렬해지는 교사와 부모의 채찍질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숨쉴 틈조차 없어진다. 그러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하나 둘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한다. 감히 가출할 용기는 없고, 부모와 교사에 대한 눈가림으로 마지 못해 학교에 나와서는 잠을 자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때운다는 것이다.

절망으로 가득찬 학생들의 고백을 들어보자.

“아무리 해도 현재의 실력으로는 대학 진학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어머니, 아버지, 형,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사촌이 모두 이른바 명문대라는 곳을 나왔거나 다니고 있다. 나는 전문대에 갈 실력도 되지 않는다. 공부를 생각하면 살기 싫어진다. 철저하게 공부에 열매여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암담하다. 나는 공부는 못했지만 착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디스코장에도 자주간다.”

“입시는 다가오고 공부는 안되고 책만 보면 이상하게 잠만 오는 지금, 모든 것이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무조건 반항하고 싶다. 어차피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야만 장래가 보이기 마련인데…… 머리

가 무겁고 아프다. 이런 글 더 써내려가다가는 머리가 터져 버리겠다.”

“건축가가 꿈이었는데…… 하지만 대학에 자신이 없다. 왜 공부를 해야하나. 짜증스럽다. 괴롭다. 희망을 다오.”

“자신이 없다. 실력도 안되고, 재수를 해도 올해 못간 놈이 내년이라고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남미 쪽으로 이민이나 갈까. 그 쪽에 농업 이민이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 가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들렀고, 내년에 또 재수를 해야 하나?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위해 해 주는, 그리고 나를 걱정해 주는 여러분을 위해 대학은 꼭 가야 하는데. 여러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모르겠다. 머리가 아프다로 끝나고 마는 생각, 생각…….”

졸업을 앞두고 유일한 목표로 삼아온 대학 입학의 꿈이 무너질 것이 확실해지면, 남은 것은 철쭉같은 절망뿐이다. 대학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크게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뉘어 있고,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학하는 곳이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75년부터 인문계 학생수가 실업계 학생수보다 많아져서 지금은 전체의 3/5 이상이 인문계 학생이라고 한다.

1987년의 경우를 볼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진학자, 취업자, 군 입대자를 제외한 무직 및 진로 미상자의 수는 졸업 학생의 38%에 이른다고 한다. 거기에 해마다 누적되어온 수를 합한다면 엄청난 수가 된다.

대학 진학자 이외의 취업자 진로 상황을 살펴보면 생산직 종사자, 운수업 관련직 종사자, 유흥업소의 웨이터나 지배인 등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뿌리깊은 좌절감과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단지 대학 입학만을 위한 교육 현실에 길들여져 왔고, 손에 기름칠을 하고 공장일을 한다든지, 땀 흘리며 육체 노동을 하는 일 따위는 여태껏 배워오고 길들여져 온 것과 거리가 먼 일들이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이렇다 할 기술도 없이 단순 생산직이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열등 의식과 패배감 속에 살게 된다.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도, 마땅히 꿈꾸어야 할 희망도 모두 깨지고 망가진 채로 말이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든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마땅히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바램 중의 하나는 자식이 부모의 기대나 희망대로 자라주는 일일 것이다. ‘품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은 성장하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 생활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은 자신과 자식을 동일시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자녀의 꿈이나 희망, 적성 등 보다는 부모의 기대와 바램이 자녀의 앞날을 선택하는데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예사이다. 대학은 누구든 무조건 가야하고 더욱이 일류대 일류 학과에 가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의 낙오자요 불효 자식인 것처럼 자녀를 몰아 붙이기 일쑤이다.

공부, 성적, 대학, 일류…… 등등 몇 종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따사로운 눈길과 손길을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부모님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갖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의 인생은 그들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고, 자녀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냉정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가진 열등감이나 좌절감, 또는 부모들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이상, 나아가 가슴 속에 품어왔던 한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개의 부모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 의식이나 여러가지 타락 현상만을 나무란다.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욕심과 편견, 집착 등이 오늘날의 사회를 이렇게 만든데 적잖이 기여했음을 간과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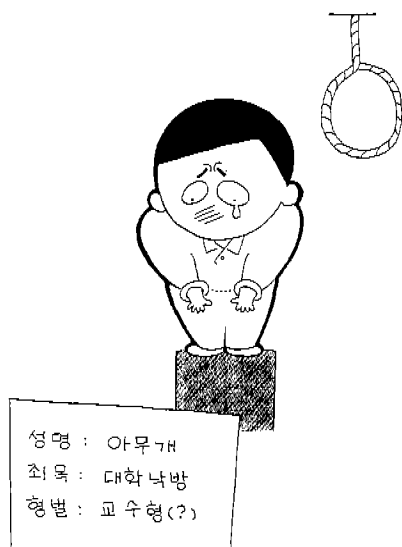
오로지 내 자식만이 입신 출세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맹목적 신념에 빠져있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대학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가 코 앞에 닥친 중대 관심사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부모들도 내 자식만의 욕심이나 일방적 요구로부터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나의 분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의 독립적 인간으로 내 자식을 인정해야 한다. 내 자식이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지를 보다 근본적인 관심사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미덥지 않고, 그러다 보면 부모의 가치관을 먼저 앞세우기 쉽다. 그러나 그 누구의 가치관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순수하며 아름다운 꿈과 높은 이상에 가득차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선입견이나 낡은 관념, 굳어진 사고 방식을 강요하지 말자. 그럼으로써 무한히 뻗어나갈 자녀의 가능성에 억지 굴레를 씌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자녀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재수생은 죄수생인가



재수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방 이후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점차 가중된 입시 경쟁의 와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며 입시 문제와 더불어 항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 교육 문제이다. 이 문제는 상급 학교 지원자는 많으나 입학의 관문은 좁은 데서

필연적으로 야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재수’의 시기에 맞닥뜨려야 비로소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다가올 뿐 그렇지 않은 한, 단지 사회적으로 요란한 화제거리나 막연한 걱정에만 불과한 추상적 수준에 머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학생 자신들부터, 고3에 이르도록 구체적인 진학과 진로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적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히 평가해 보는 기회를 최후까지 보류한 채 막연한 성적의 상승과 진학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그런 형편이니 학부모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고3 담임 교사가 3학년 2학기의 진학 희망을 조사해 본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손꼽는 일류 대학에 가겠다고 적어냈다는 것이다. 전문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에 정상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수는 한 반의 절반도 안되는 것이 입시 경쟁의 현실이며, 더우기 손꼽는 일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이다.

재수생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간에 임금의 차이가 크게 난다든지, 대학이 사회적 출세와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교육관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나 학생이 개인적 노력으로 당장에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막상 재수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며, 실제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여러가지 어려움을 생각하면 절로 한숨만 나오게 된다. 또한 재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지침

이나 조언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매년 입시철 마다 각 매스컴은 ‘금년 대학 입시, 최고의 경쟁률 기록’이라는 머리 기사를 뽑아 올렸으며, 재수생수가 점점 누적되어가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대학 입학에 위한 체력 검사 응시자를 기준으로 볼 때, 올 '90학년도 전체 대입 지원자 약 88만 9천여 명 중 약 28만 명 이상이 재수생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대입 지원자의 약 30%가 넘는 숫자이다. 전체 재수생 중 대학 진학에 성공하는 비율은 해마다 다르며,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0~40% 수준이라고 한다.

최근 한 교육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82년에서 '88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재수생의 대입 합격률은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점차 낮아지고 대신 전문대나 교육대학 진학률이 점차 높아진다고 했다. 즉 4년제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한다는 것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대졸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기술 인력이나 기능 인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지어 볼 때 약 30%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그리도 어렵다는 재수에 도전하여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현실이 참으로 모순되게 느껴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이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는 맹목적 집착과 이를 부추기는 사회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주변에 너무도 많은 재수생이 널려 있다는 것이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돌기 좋은 변명과 더불어 재수를 당연시 하고 재수 결정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재수생 문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수생의 경우 장자-독자 포함-가 많고 부모의 기대가 지

나치게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학교 재학 당시 학업 성적의 기복이 심했고, 충분한 진학 지도를 받지 못했으며, 학업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안고 있었고, 재수 무경험자에 비해 약물사용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수생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재수생의 사회적 이탈이나 탈선이다. 재수생들은 무리한 학습, 진학에 대한 부담과 불안 등을 지니게 됨으로써 재학생들에 비해 탈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어느 곳에도 적절히 소속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정성과 신분의 모호성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이 된다.

재수생이 되어 이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해보도록 하자. 먼저, 재수는 낙방이라는 쓰디쓴 고배의 잔으로 시작된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일단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과 낭패감에 사로잡힌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필수적으로 진학해야만 하고,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은 곧 인생의 낙오요 실패라고 여기는 현실 속에서 불합격이란 견디기 어려운 참담한 패배이다.

시험에 실패하여 재수를 했던 J군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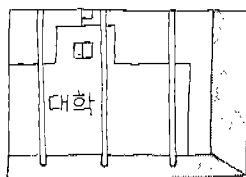
“막상 떨어지고 보니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보다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이제 세상이 완전히 끝장 났다는 절망감 뿐이었어요.”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목표 아래 ‘어떻게든 들어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이란 전혀 할 짬을 주지 않는 우리 사회의 입시 풍토에서 보면 그러한 절망감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재수는 절망감에서 출발하고, 그 절망감이 다

소 누그러들어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 다음엔 갈등과 번민에 싸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 해를 지겹게 공부해야 하는데, 이젠 그 공부라는 것을 친구들과 더불어 한다가 보다 혼자 외로이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학원이나 과외나 혹은 독학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학생들만 가지고 씨름하기도 벅찬 것이 우리 학교의 실정이므로 재수생에 대한 진학 지도 내지 진로 지도를 해주기란 역부족이다.

재수생들은 일반적으로 크건 작건 학원의 신세를 지고 있다. 이 학원이라는 곳은 동병상련의 상처와 어려움을 지닌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함정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개중에는 훌륭한 교육 환경과 분위기를 갖춘 학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대다수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재수생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수생들은 구속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기 쉽다.

재수생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재수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극장, 당구장, 오락실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면 학업 성적이 재학시 보다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 탈선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재수를 하여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여러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수 경험자와 무경험자 간에 대학 생활 적응상 의미있는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학과의 경우 재수 경험자들이 더 잘 적응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실상 재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재수를 하게 되었는가가 문제라고 하겠다. 재수를 하는 많은 학생 중 일부는 재수를 압박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왜 재수를 하게 되었는지를 냉정히 파악하여 ‘이번의 실패’를 ‘다음의 성공’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학생들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인생 경험을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은 제도적, 환경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계속되는 실패의 상처만을 안게 된다. 재수생은 결코 최수생의 아니며, 재수가 필수나 선택의 당연한 과정일 수도 없다. 단지 삶의 어떤 마디에서 적절히 뛰어넘거나 밟고 건너야 할 단계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 판단에 의해 일단 재수를 선택했다면 이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요청된다.

재수 경험자와 면담해 본 결과 재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이 나타났다. 하나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과 압력 때문에 재수를 결정한 경우이다. 전자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나 능력, 현실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한 결정이다. 후자는 자신의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 부모 등의 기대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경우로서, 이 경우 당연히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십상이다.

재수의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과잉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에 관해서는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한 교사가 전하는 증정어린 글 속에 다음과 같은 어떤 학생의 이야기가 나온다.

“막막하다. 자신있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그렇다고 대학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집에선 아버지 어머니께서 틈만 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넌 우리 집의 장남이니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나를 들들 볶아 잡수신다. 정말로 세상 살기 싫어질 때가 많다.”

이 고3 학생의 이야기에서도 부모의 기대와 그 표현 방식,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 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하물며 고3보다도 학습 부담이 크다는 재수생의 경우 그 압박의 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이야기에 나타난 부모가 특별히 유별난 부모도 아니고, 자녀의 마음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도 없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재수라는 특수한 상황이 청소년기의 감수성과 결합하여 매우 예민하고 날카로운 정서 상태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심리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는 있으나, 이미 상처입고 지금도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 처해있는 재수생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적절히 표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너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자녀와의 적절한 대화, 자녀를 대하는 기술 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을 즐기워 하면서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와 세상 사이를 더이상 부모의 힘만으로 가로막고 설 수 없다.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의 부모가 깊이 새겨볼 만한 말이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자녀에게 다가오는 불가피한 도전에 대해 부모로서 지나친 관심이나 애착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속뜻을 가진다고 하겠다.

결정의 시기에 직면했을 때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엔 자기의 몫을 자기가 짊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부모는 다만 부모의 몫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한 걸음 떨어져서 담담히 넓은 그늘을 드리워주는 부모는 상처입은 자녀에게 말없는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 민족과 조국의 장래는 바로 청소년에게 달려있다고들 말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교육, 점수와 성적 위주의 교육이 청소년 학생들을 괴롭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살인적인 입시 경쟁 속에서, 가까운 친구마저 적으로 둔갑해야

하는 비인간적 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시험과 점수의 노예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버리고 마는 극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현장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을 제일 괴롭히는 것으로 부모, 입시 제도, 교사 등을 꼽고 있다고 한다.

다음의 표는 국회에 보고된 자살 학생 통계이다.

’88학년도 월별 자살 현황

(6월 20일 까지)

구 분	월 별					학 년 별				성 별			학 교 별		
	3	4	5	6	계	1	2	3	계	남	여	계	중	고	계
인원수	12	13	13	13	51	17	12	22	51	33	18	51	12	39	51
백분율 (%)	23.5	25.5	25.5	25.5	100.0	33.3	23.5	43.2	100.0	64.7	35.5	100.0	23.5	76.5	100.0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자살 학생의 수는 학생들의 자살이 단지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성적 때문에 죽은 학생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언론이 성적 문제로만 몰아간다”고 푸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비단 교육위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심지어 학부모들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살의 원인을 가정 환경이나 학생 당사자의 심리적 낙담 등으로 돌리는가 하면 오히려 자살 학생들을 비난하기조차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학생들에 대한 몰이해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 등은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는 곧 우리 자녀들을 더욱 고통스

럽게 만드는 촉진제 노릇을 하게 된다.

우리 자녀 중의 하나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은채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본 바 있다. 다음은 그 기록의 일부이다.

“지난 78년 10월 대입에 두 번이나 실패한 서모군은 코 앞에 들이 닦친 예비고사에 대한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유서에 밝히고는 음독 자살했다.

이듬해 11월에는 Y 국민학교 4학년에 다니던 최모양이 부엌 선반에서 쥐약을 꺼내먹고 자살했다. 월말고사에서 19개나 틀렸으니 아버지에게 혼날거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그냥 약을 삼켰다니, 어린 소녀에게 성적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짐작케 한다.

81년 7월 24일 대구 K고 2학년 강모군은 ‘세상을 살기 싫다, 다시 태어난다면 백치로 태어나고 싶다’며 공부에 대한 환멸을 나타내고 자살했다. 강모군은 학급에서도 간부를 지내는 모범생이고 집안에서도 효자였다고 한다.

85년 서울 강남 S고 2학년 신모군은 ‘1학년 1학기 때 1등, 2학기 때 4등 -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만 하니, 더 이상 공부할 자신이 없다’며 철봉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베어 자살했다.

86년 1월 15일 많은 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S사대 부속여중 3학년 O양의 죽음’이 있었다. 86년은 O양을 시작으로 수십명이 목숨을 끊었다. O양은 전교 2~3등을 하던 우등생으로 연합고사도 끝마친 뒤였다. O양은 아버지에게 1통, 친구들에게 5통의 편지를 남겼고, 그 속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청소년의 달이라고 떠돌던 5월에는 하루 걸러 한 사람의 자살 학생이 생겨났다. 86년 5월 6일 S여고 3학년 학생이 학교 옥상에서, 7일에는 Y중 3학년 최모군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가족의 말에 의하면, 최군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매우 초조해

했으며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을 복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유달리 염세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들이었던가? 이들의 죽음을 단순한 자살로 보기는 어렵다.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주범은 무엇인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앞서 자살한 친구들의 실태를 조사한 P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그 이유로 꼽았다.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전체 학생들 중 30%도 못가는 대학을 위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막대한 기대 속에 공부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30% 이내에 끼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학생을 짓누르고 있으며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

둘째,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이다. 사회나 교육자들은 청소년을 신체적, 정신적 미숙아로만 파악할 뿐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사고와 행동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셋째, 부모님들의 기대와 요구로 인한 불안감과 위압감이다. 지금의 부모님 세대는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뼈아픈 체험을 통해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하게 되고 이는 곧 과잉된 교육열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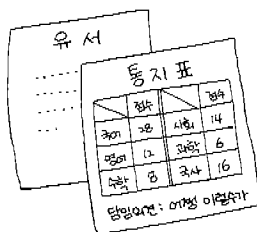
십대 청소년들과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십대들이 단지 나쁜 성적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나쁜 성적에 부모의 염려와 기대가 플러스 되어지면 고민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객관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닌데도, 부모의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들은 나쁜 성적을 끌어 올리지 못해 고민하기 보다는 부모의 기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안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나의 내일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체면과 강요 때문에 공부를 해야하는 짐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강요나 과잉 기대가 심해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죽으라고 공부만 강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결국 청소년들은 모순된 교육 제도와 사회, 그리고 어른들에 의해 살인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다음 글은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십대 소녀가 보내온 상담 편지이다.



“저희 아빠는 모든 것을 성적과 연관시켜요. 5등 안에 들지 못하는 애는 살지도 말라는 식이죠. 옷을 사달라고 하면 ‘공부도 못하는게 무슨 옷이냐’ 하라며 몸이 아픈 것까지도 공부와 연관시킨다구요. 어제는 ‘아빠 저 병원에 다녀왔어요’ 했더니 ‘공부를 못하니까 아프지, 공부를 잘해 봐라, 어디 아픈가’ 요즈음은 아빠랑 말도 잘 안해요.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가출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해져요.

이런 상태에서는 싫어요. 공부가 싫어요. 아무리 친해지려 해도 무서워요. 요즈음은 더해요. 중3 고입을 눈 앞에 두니 한층 더 할 수 밖에요. 저희 엄마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공부를 시키셨으니 지금 고등학교 공부하라고 들볶지 않는 것만도 다행은 다행이죠.

방이 되면 전 무서워요. 일기를 쓰고 있으면, 매일 살금살금 다가와서

‘공부하지 않고 뭐하니?’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려고 하면,

‘어디에 신경쓰고 공부는 안하니?’

부모님 눈 앞에 안보이면

‘너는 매일 잠만 자니?’

눈앞에 보이면,

‘자기 방 주었으면 거기서 공부나 할 것이지 왜 명청히 있는거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옷에 신경도 쓰지 않더라.’

‘누구 누구는 잠도 안자고 공부 한단다.’

‘뭐 친구 생일? 생일은 무슨 생일이야? 집에서 공부나 해.’

‘너 누구 누구랑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경쟁심이 안 생겨서 성적 안올라.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하게 지내라.’

‘1등 해야지, 1등.’

‘일류, 일류.’

‘일등, 일등.’

‘공부, 공부.’

매일 밤 살금살금 다가와 ‘공부 하니? 잠자니?’, ‘공부 열심히 해

야 한다.’ 자고 싶은데 무서워서 잠도 못자요.
 ‘별써 자니?’ 하면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무서운 사람이 싫어요.
 저도 일등 하고 싶고, 일류 학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감옥같은 구
 속감 속에서는 싫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저런데 너도 저래야지.’
 ‘이 아이는 이런데 너도 이래야지.’
 저는 저예요. 이 아이도 저 아이도 아니라고요.
 ‘너 고등학교 떨어지면 엄마 아빠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니?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다.’
 ‘저는 동물이 아니예요. 엄마 아빠의 도구도 아니예요. 정말 싫어
 요.’

지금도 이러는데 대학 입시 때는 오죽할까요. 지금도 무서운데,
 아마 그 때는 죽으려고 할 지도 몰라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공부는 저를 위해서 하나요? 부모
 님을 위해서 해야 하나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학창 시절에 공
 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후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는 이상 자녀의 공부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겠
 지만,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많다고
 청소년 상담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자주 자녀를 앉혀 놓고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어려
 움을 강조한다. 그리고 우등생이 아니었던 부모님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공부가 즐
 겁고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루 종일
 엉덩이도 다 못 걸치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수업에 들어오
 시는 선생님마다 제각기 내주시는 각 과목의 숙제들을 모두 소화
 해 내야 하는 것은 단 한 명의 학생인 것이다.

성적 올리기를 다이어트와 비유한 이야기가 있다. 다이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라면, 보통 생활로 1kg의 군살을 빼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것이다. 겨우겨우 1kg의 군살을 뺐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내 원상태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도 알 것이다. 학생들이 평균 1점을 끌어올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매우 실감나는 비유라 아니할 수 없다.

작은 진보라도 있었다면 그 점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너도 이대로 가면 잘 할 수 있다”는 따뜻한 믿음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학생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선생님과 부모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자라도 더 보고 한 자라도 더 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조금 부진했기로서니 우리의 기를 그렇게 사정없이 꺾으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어른들이 뭐다.”

“공부보다는 건전한 친구 관계가 더 좋고, 공부보다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단 하루라도 부모님과 같이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어하는 우리 10대들의 마음을 왜 어른들은 몰라 주실까?”

“우리들의 심정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말로만 이해한다, 안다. 등등…… 이렇게 위장을 하는 어른들이 정말 뭐다.”

들리는가? 그저 못나고 비뚤어진 남의 아이일 뿐이 아닌, 바로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이가 토하듯 부르짖는 이 애절한 호소가?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생생한 증언과 진정 어린 충고에 귀 기울여 보자.

“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집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게 하거나 작문을 쓰게 해보면, 거의 모두가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때로는 그 미움이 원한처럼 되어서 아이들 탈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아이,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식의 맹목적인 모성 때문에 자기 아이들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못견디는 것은 결국 오로지 공부 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모아집니다. 공부만 강요하는 어머니의 극성은 성장하는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목말라 하는 친구, 모임, 여행, 독서, 기타 취미 생활과 차단시켜서 자유스런 느낌, 건장한 몸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자녀를 입에 올려 아이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기 일쑤입니다. 짐승처럼 간혀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버린 아이들 가슴 속에는 그저 미움만 가득 고입니다.

시험에 소질없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무서운 지옥에 다름 아닙니다. 이럴 때 학교로부터 벗어나 숨을 돌리고 따뜻한 품에 안길 만한 곳은 가정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공부 못하는 자식 가졌다는 열등감과 주부들이 갖기 쉬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모두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로 쏟아 붓습니다. 가정은 학교 이상의 지옥이 됩니다.

이제 부모님은 아이들이 할 만큼해서 나온 최선의 성적과 한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성적이 나쁘면 나쁜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석차가 뒤쳐진 아이들도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 사회의 어느 직업, 어느 위치에서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개를 키워주어야 합니다.”

